

聖句

이제 고난 받는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 족히
비교할 수 있나니라
(2코 4 : 18)

圖書館

印度의 카톨릭神學生
反共運動에 大活躍

共産黨의 信條는 基督教에 위반된다

민중을 조망하여 일관성 있는
학문적 각 층의 공헌을
보여주어 전례없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지도하였
다. 그리고 이 대중조직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문화공세
에 대항하기 위하여
음악의도 개척하였다.」

그는 그들을 반공전선에 규합
하고 유력한 회회지도와 헌투
고도까지 흡수하였다. 파가二
년간의 그의 반공전선은 광범
미 五十만에 달하리라고 한다

難民救濟部總務

博士來日

고 자부할 세계四十개국에 두
어 전세계의 기록도를 대표
하여 피인민구제사업을 하고

서울의 二

우령찬北進統

정부와 서훈 특별시 공을
주최로 三十五回三一절 기념식
을 일 오전十시 중앙청 광
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식
장에는 함부 총령을 비롯하여
백국무총리 국무위원 전부, 국

實協議會(WOO)의 韓民救濟
 部총무 에드거 샴러(博士)는
 미국을 경유하여 二十六日正午
 하네다에 도착하는 P.A.A機로
 일본에 왔는데 東京 제부 주일
 지부 주사 소울씨의 환영을
 받아 마루노우치 호텔에 留宿
 는데, 동 박사는 중공 피난민
 의 일본 의주상환과 재일 한
 국난민구제회등을 시찰할 예정
 이라고 한다.

(註) WOO 난민구제부는 U
 N 피난민구제고등법무관의 위촉
 을 받아 본부를 제네바에 두

가 말스주의를 연구할수록 하
나됨을 부인하는 그들의 심조가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판디의
사상에나 그리스도의 교훈에도
배치가 되는것을 깨달았다。」
고 트람플 기자는 다음과 같
이 말한다.

바다칸씨는 그 운동을 전개
하기전에 이미 로마의 카도릭
신부들은 반공운동을 하고 있
었다. 이 나라이 높은 표양을
가진 九百여만의 인민의 三분
지一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도의 다수가 이 사람의 운동

서 昇가를 얻어가지고 이년은
총선거때에 공산주의자가 많이
나온 靑丘주의 공업도시 트리
쿠르에서 반공운동을 전개하였
고 한다.

그의 반공운동은 주 전체에
二千의 세포조직을 가지고 그
뒤에도 시 동회의원 선거에서
공산당을 타도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였고 한다. 이 일은
이 열심있는 신학생으로 하여
금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하여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집회에
몰을 던지고 그의 생명을 위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兼 吳 允 台
發行 華 田 榮 澤
主 筆 田 榮 澤

福音新聞
THE POK EUM SHIN MUN

大學의門을나서는卒業生에게

금년에는도 이방의 각 대학에서 형설의 공을 쌓아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그 수를 확실히 알 길이 없으나 상당히 많을 줄 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누구인지 비록 면식이 없다 할 지라도 알거나 모르거나 다 우리 한국에 태어나 우리와 피를 같이하는 동모라는 한 가지 조건에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강의 축하를 보내는 바이다.

옛날의 우리 유학생은 대개 부요한 집 자제로 말마다 학비의 송금을 받으므로 하숙에서 평안히 공부하였으나 지금의 학생들은 태반이 오갖고생을 가추가추 하면서 「알바이트」를 하고 자취를 하면서, 배를 굶고 고독의 생활을 하면서, 근근자자 연구를 하는 정경은 우리가 마지치지 않고 노력하고 동정을 마지 않는 바이다. 그중에는 그 부모 가족이 이북에 있어서 생사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 졸업을 하여도 수고했다고 면지 한장 받지 못하니, 그런 이는 더욱 심리적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학업에 전심하여 마침내 졸업을 했다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한
과 연구에 있어서 그 성정
이나 기술이 일본사람보다
떨어지지 아니할뿐 아니라
훨씬 우습하여 등반학우나
교수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는
더 기쁘고 긍지를 느끼게
되는 바이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대하여
수고했소 고생 많이 했소 하
는 위로의 말을 하고 「우
리도 기쁘고 영광스럽소」하
고 중심으로 치하의 말을
보냈것 밖에 없으나 이제
몇 말씀만 권하고 바라는
바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분은 이제 어찌
할까하고 망서리고 세월을
보내지 말고 조금씩 건국木

에 공산침략으로 큰 국난을 당하여 패허가 되고 따라서 이제 재건과 부흥의 대업이 큰 과제로 우리 앞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군이 부흥한 것이 절실한 문제이니 이 땅에서 불기 좋다고 어물 어물 지내지 말고 더구나 조국이 아직 안정이 못되었으니 갈것 없다는 무정하고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고 한루바 **나**라고 돌아가기를 바란다. 어서 가서 혹은 가업을 돌고 혹은 배운것을 가르치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더욱 본국사회의에는 상상할수 없는 모순과 유혹이 많을것이니 그 모순과 유혹에 부닥칠 때

실현하거나 녀며 지지않도록
미리부터 단단한 각오를 가
지고 강한 신념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현대교육의
가장 큰 결함은 인격의 양
양을 주지 못하는 것이니
따라서 여러분도 인격의 수
련은 빠지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라도 정신수양과 종교신앙으
로 신념의 사람, 인격의 사
람이 되기를 힘쓰라 신념과
인격이 없이는 학술이나 기
술만 가지고는 나라나 사회
에 유익을 주지못할뿐 아니
라 자신의 성공도 바랄수
없으니 이제에 깊이 반성한
기를 재삼 바랄다. 그리고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조
국은 그대들을 고대한다.

어디로 가는가

자 독자는 각각 이 엄숙한 달릿이다 국가와 사회와 그 집안의 운명은 그 젊은이들이 결여하는 방황에 따라서 그 흥망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움직임은 아름답고 빛나는 것 같으나 실상 사 람들 바르게 살고 싶게 하거니와 망치는 길이 더 많다 남이 한다고 남이 간다고 정신없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남의 가는 길을 거슬러 서라도 저 갈길을 가라

사람의 일생의 운명은 젊어 서, 젊어 가는 한거를 두거름에 달린 것이다 국가와 사회와 그 집안의 운명은 그 젊은이들이 결여하는 방황에 따라서 그 흥망이 결정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움직임은 아름답고 빛나는 것 같으나 실상 사 람들 바르게 살고 싶게 하거니와 망치는 길이 더 많다 남이 한다고 남이 간다고 정신없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남의 가는 길을 거슬러 서라도 저 갈길을 가라

그대의 가는 길이 정의(正義)의 길인가 하나 남알려나

사람앞에나 부끄럽지 아니한가 살피고라 묻지 하나 남알려나 으면 사람에게도 올은 길일수 있다.

「피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 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가 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아가는 적이다」하였다.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살 필로 의(義)의 길로 가라.

지도자여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대들이 내 자리를 버리고 갈 때에 예수께서 가 시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시나 이까」하고 물어보라.

있는 것인데 이미 十萬의 피 를 내민에게 각각 재생의 길을 열어주고 이미 七千二百만에 달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紀念式

統一의萬歲소리

회에서는 신국회의장 조,윤 양부의장 김대법원장이 출석하 고 텔러 미八군사령관 부력스 미국대사 왕(王)국부대사 U N 한국위원장 U N K R A 단장 등 외국 명사도 다수히 출석 하였다 식은三一운동 당시 三十三人중 한사람으로 생존 하신 이명룡(李明龍)노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고 이화 여중 합창단의「三一절의 노래」의 합창, 이대통령의 기념식사 등을방송, 폴리스블리디 국련한 위장 텔라사령관의 축하가 있 었고 함 부통령,김 서울특별 시장이 三十三人中 생존자 이 간성 이명룡 두분에게 드리는 기념품 진정이 있고 김 서울 시장의 선창으로 우렁찬 만세 삼창으로 식이 끝났는데 당일 서울 운동장에는 五만중중이 북진통일결기대회로 모여서 오 항복 북진통일 결의안을 발표하 고 국기를 휘두르고 북진통일 을 웨치면서 시내를 행진하였 다.

社告

『福音新聞主日』의各教會獻金額

去年 十月 第九回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에서 決定된대로 지난 二月七日 主日을 各教會가 『福音新聞主日』로 지키어 헌세 헌금해 주신데 대하여는 감사 하오며 제 三火로 헌금하신金額을發表하나이다.

三河島教會 八百圓也
福岡教會 貳仟參百九拾圓也
大垣教會 壹仟五百圓也
川崎教會 壹仟貳百七拾圓也
多摩川傳道所 五百圓也
累計金四萬四千四百貳拾參圓也

福音新聞社

豫選權大會極東選手蹴球世界 勝快團選手韓國 1對5



三月七日과 十四日 東京에서 열릴 世界蹴球 選手權大會 極東選手選에 日本팀과 對戰할 韓 國選手團 鄭商熙 李穆澤監督以下二十四名은 지난 一日午後 六時四十分에 하네다에 到着하였는데 一同은 元氣왕성하여 지난七日 오후二時부터 都內明治神宮 구라운드에서 一回試驗을 結果 五對一로 韓國軍이 得勝하였다.

人事

○파우열牧師(在日大韓基督教會教師)教會觀察次三月月子定으로 去月下旬 韓國行.

○高乘幹博士(慶北大學總長)大 구제一教會長老(美國教育觀察)을 마치고 歸路에 지난三月 三日本社來訪.

○원리암 千博士(前韓國宣教師 U N司令部放送部事務中) 지난 三月六日退任歸國.



望臺聲

○獨 해외에 서 동포끼리 서로 돕고 같이 살아가 지 못할가 어떤 큰 기업체를 가진 이에게 「왜 한국 사람을 쓰지않느냐」고 물어본 즉 대답하는 말이, 한국사람을 쓰면 「제가 충실하게 일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생각을 하지않고 주인이 같은 한국사람이거니 하고 믿고 웬만해도 보았주겠거니 하고 의뢰심을 가지고 물어먹을라고만 하고 공언이 말상만 부리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일본사람을 쓰노라고 한다.

○이것은 서로 못 사는 장본이니 주인도 해롭고 자신도 제구실을 못하고 밤낮 그물로 살수밖에 없으니 결국 제게도 해로운 일이다. 제 집안이라고 친척이라고 혹은 동포라고 의뢰심을 가지는것은 가장 비루한 일이니 이런 사상은 뿌리부터 뽑아 버려야 하겠다.

○그렇다고 동포를 물리치는 것은 너머 자기 중심이다 여 간 내게 해로울지라도 동포를 쓰고 동포를 돕보야 동포의 생계의 길을 여려주어야 할것이다 여기에서 중 국사람은 훌륭하다. 어디까지든지 자기끼리 돕고 부들여가는것은 과연 본받을만하다. 의례이 자 기 네사람을 쓰고 자리가 남 아야 외국사람을 쓴다.

○바라노니 우리도 동포끼리 돕고 부들여 주는 동포애를 발휘하자.

在日韓國 Y M C A 主催

三三節紀念懇談會

재일 한국 Y M C A 에서는 지난三月一日 오후 六시에 동양 이스트스 클럽주최로 三三節 기념 간담회를 열었는데 특히 三十五년전에 재일한국 Y M C A 가 중심이 되어 상해외국인과 연관을 하고 등경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할때에도 우리 Y M C A 에서 모여서 한 인연같은 三三절을 기념하였다.

김우현총무의 사회로 애국가를 합창한뒤에,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용감스럽게 나서서 독립선언을 하던 것을 회고하고, 그때 본사 전영목목사의 회고담이 있었고 김총무의 회고담이 있었기에 마침 미국에 가서 육개월동안 수감하고 돌아온 한국헌병학교 교관 유원근 중위 장영학중위의 재미있는 감상담을 듣고 만찬을 나누고 헤어졌다.

조카인대 미주에 가서 한국군인들이 대개 한국은 재미있는 나라라고 충실히하게 비평하지 않는 한가지 회고에 대하여는 정찬하대 한국의 회상은 교회라고 말하는것을 듣고 자기도 그것을 듣고 회고하면 신학을 공부하여 교회와 복음사업에 헌신할것을 약속하였다. 본사 전영목목사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三三운동은 동경에서 언제 열어난 독립선언운동이 동기가 되어 마침내 거사가 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당시의 학생들은 애국이 불타서 죽기를 각오하고 운동을 하였고 전부 학업을 중지하고 철권하기까지 하였다 한다. 그리고 그때에 동경학생회에서 처음 이 의논이



(사진은 간담회에서 말씀한 전) 主필과 장 중 위 유 중 위 列下

論壇
女性の自覺과
女性에對한認識

현대 사회의 특징은 여성의 해방이라고 할수 있다. 과거의 여성은 남자의 종속적 존재로 인권을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세 시대는 그런 생각을 용인하지 않고 여자도 사람이라는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따라서 여성의 인격과 인권을 완전히 보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적 사상의 산물이라고 할수있으나 그 깊은 근원은 남자와 여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독교 사상에서 발해 나왔다. 불수있다. 그러나 비록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원리가 있다. 치더라도 여성들이 자신에 자각을 하지 못하면 안될것이다. 곧 여성 자신이 인격적 자각을 가지지 못하면 안될것이다.

동양의 오랜 전통과 민습으로 여성 자신이 여성은 남자를 섬기고 남자의 그늘 밑에서 남자를 의존하고 살것이오 독립적인 존재가 못되고 자립의 생활을 할수없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서 아무 자유나 권리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여성으로서 독립적 생활을 한다는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때문에 문제 여성 자신의 힘있는 자각과 판단성 있는 혁신이 없이는 여성의 인격이나 자유를 찾기는 곤란할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오랜 민습과 우리 사회의 경제조직이 남존녀위로 되어있고, 여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관념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과 압력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비록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어간에서는 그 인격과 자유를 보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첫째 여성 자신의 철저한 자각이

필요하고 그 자각을 실현하고 뻗어갈만한 충분한 교육과 실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다음에는 남자들의 여성에 대한 관념과 태도를 고쳐야 할것이다.

여자는 독립해서 살수없다는 관념과 심지어 여자는 남자의 위안을 주는 희롱물로 여기는 물상식한 사관들이 흔히 있고, 더구나 식자와 지도자층에도 그런 남자가 있는것은 큰 유감이다.

이상에 말한 현상은 본국이나 일본 교포사회나 마찬가지라고 할수있다. 본국에서는 과거 삼년간의 전란으로 전사자와 남자가 많은 결과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기때문에 여자의 지위의 인

宣教師韓語學校 (東京)

三月中旬休校

國際宣敎連盟主催
家庭生活協議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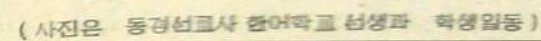
國際宣敎連盟(I.M.C.)에서는 금년 가을 十一月九日 十六日 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중앙교회에서 동양 기독교가정생활 강습회와 및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동 협의회에 참가할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대만) 인도 타이 비르마인 의되리라고 한다.

주요가 논의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한국사범은 독립을 원치 아니하고 일본과 협력할 것을 다는 연찬장을 발표하다가 발표하므로 이때에 한국사범의 사관 제도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학생들사이에 여러가지 의견이 그날까지 갈수있다고 한다.

조직과 활동은 연찬회에서 구상된 일로 한국대표단과 각지에 세명까지(일본(일본교인) 한가를 비롯하여, 연찬회에서는 동양의 기독교가정생활을 주제로 결혼문제, 교육문제, 태도문제, 미혼녀의 지도문제, 기독교가정생활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려는것인데 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관계 가정의 자녀 문제와 노인문제등이 논의되리라고 한다.

사범이후로 한국으로지원하고 선교사들이 일본에 머물러 있는이가 많은 관계로 그들이 일본에 있는 교회도 돕거나와 우리 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동경에 한국어 학교를 개설하고 남녀선교사가 열심히 모여 계속해 오던바 이번에는 미군사령부에 가족까지 한국에 갈수

게된것을 매우 기뻐하여 떠나



식과 사회적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고, 교포사회에는 여성들의 일군이 부족하고 우리 여성사회가 일본의 여성보다도 뒤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급속한 자각과 이에 대한 남자의 인식이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본국에서나 포포사회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이 부족한 이때에 여성 의 자각과 인식이 없으므로 우리의 반수의 인원을 잃어 버린다면 민족적으로 큰 손 해라고 할수 있으니 하로바 비 여성의 자각과 심령양성 을 바라고 이에 대한 남자 들의 반성을 재촉하는 바 이 다.

基督教講座開催

사상 대법과 민족적 감정이 강한 일본 땅에서 북음전파는 심히 어려운 일이고 교인이 증가될 것 같이 많아 보이나 하나님 의 크신 축복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음 수짜로 볼 수 있다。

1952년도교세				1953년도교세			
세례교인	남 389	합 1081	남 398	합 1128			
	女 692		女 730				
학습교인	남 94	합 232	남 108	합 259			
	女 138		女 151				
구도자	남 101	합 247	남 159	합 381			
	女 146		女 222				

1953년도 일년간 증가된 신자는 207명
유년주일학교, 연려청년회, 부인회 모다
거년보다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 日本에서의 實情에 對하여—

姜泰眉

(3) 보!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그 實情입니다. 政客이나 實業家は 皆지만 이땅에서 成長한 二世를 教育해 보았다는 露志家は 드문 것입니다. 「그 민족이 갖은 文字와 文化와의 사이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말한 것은 土耳其의 革新의 政治家로 世界歷史上에 盛名이 있는 케말파시야와도 記해합니다만 一時 우리는 우리 글과 우리文化를 이 地球上에서 別樣해 버리고 한 辛酸한 經驗을 日帝時代에 겪고 왔읍니다. 민족이 存在하는 곳에 그 민족이 갖은 言語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말이 이 地球上에서 가치를 감추지않아는 우리民族도 決코 生存한다는 것은 眞理인 것입니다. 그 좋은 例로서 유대民族이나 露一 램드의 民族史가 있습니다. 兄弟도 이미 말시다싶이 유대民族은 나라없는 民族으로서 世界各處에 散在하여 갖은 壓迫과 苦難을 當하여 오다가 第二次大戰後에 自己들의 獨立國家를 建國하였는데 그들은 舊來 그 民族이 갖은 宗教와 風習은 그대로 지켜 나왔고, 露一 램드는 數次로 러시아와 독일의 侵略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言語와 文化를 固守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렇지 吳했읍니다. 海外에서 革命家들이 日本帝國主義에 抗拒한 斗争史가 있는 外에는 大體의 無氣力였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더욱이나 戰爭 末葉에는 文化人들까지 卒先해서 日語를 使用하고 심지어는 創氏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反動인지는 몰라도 解放當時는 모두가 愛國者가 될 것같이 우리文化를 讚美하고 全國各地에서 한글教育이 盛況을 이루었고 앞으로 크게 發展할 것같이 보이더니만 어느덧 解放當時의 感激도 차츰 사라지고 이제와서는 그러한 情懷를 보지 드물게 된 것입니다. 最初에는 이 現象을 社會가 解放當時의 過渡期를 벗어나 正當한 狀態로 復旧한 時分가 來고 있지만 점점 覺되도록 그 當時보다 一步 後退하였음을 覺할 수가 있었읍니다. 이 日本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解放當時는 어느 누구도 우리말을 배워야 한다고 力說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實踐도 있었읍니다. 그것이 우리말보다 英語나 露語를 日重視하게 했으니 過去社會에서 漢文을 偏重하던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歷史는 뒤로한다고 하였거니와 이러한 事實을 말하는가 하여 苦美를 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글에서 目的하는 것이 完固한 國粹的 民族主義를 표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은 歷史가 가리키는 敎訓에 對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그렇더라도 現代는 過去時代와 달라 民族의 問題가 그 民族社會에 국限되는 것이 아니고 世界性을 띠게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二十世紀 現代는 世界の 어느 곳에서 일어난 事件이든지간에 世界 全體의 問題로서 論議되는 故로 世界の 各民族國家는 相互間 交通하며 孤立해서는 生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文化라 하면 우리民族만 享有하는 文化가 아니고 世界各民族이 한결같이 享有하는 데에 現代의 性格이 있다고 봅니다. 이리므로 恆常 事物을 論及하는 世界的 觀點에서 보고 생각해야되며 單一은 全體와 不可缺의 關係를 맺고 서로 影響하는 것입니다.

紀行文

그리운 祖國江山

(2) 主筆

종로에 큰 횡으로 제대로 수리하고 있는데, 예수교회를 한나 뿐인것 같다. 지하층과 깨어진 일층과 옥다귀만 남았던 이 집을 사들까지 수리하고 사회자세는 물론이요 학교 교육협회 장로로 총회사무실 기록공보, 한국기독교신문 등 각 기관이 들어앉아서 다시 크리스찬 센터를 이루었으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서회 아랫층에 「시온」 다방이 8장로의 정원으로 다시 열리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 동배나 젊은 친구나 만날수 있는 나 매우 편리하였다. 거기서 나는 김재준교수도 만나고 김양선목사도 만났고 이환선목사도 호빈목사도 만났고 시온 박화목씨 박무진씨 음악가 나 윤영씨도 만났다.

기록부의 각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밖에 기록부 일꾼들이 이 다방에서 따끈한 차를 같이 마시면서 서로 정이 통하고 뜻이 합하여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함이 크기를 나는 유망하다고 한다.

다음에 기록부인이 흔히 모이는 데는 시청앞에 있는 신에 다방인데 나는 거기서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용섭, 정영형 같은 정계에 나간 이와 정인파 정치감같은 아직도 뒤에서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들도 만날수가 있었다.

이제 조국의 문화운동은 실로 번기로 하자.

한도한지 반년밖에 못된 형편인데 사변전에 있던 문화회가 관이 거의 다 자리를 잡고 나뒀을게 움직이고 있는것은 과연 고마운 일이다. 서울 등 아 조선 중앙등 대 신문은 말할것 없고 회랑 문화춘추 등 여러가지 월간잡지가 각 서점에 활활하게 벌려있는 중 에 중학생을 위한 잡지 「학원」은 자기네말로 10만부가 나간다고 한다. 그리고 기록부교회에서 사범동안에 나온 「새벗」은 여전히 잘 팔리고 새로 나온 「세 가정」도 김형식군의 편집으로 아름답게 나오는 데 장래가 유망하다고 한다.

講壇

現代와 그리스도

(2)

누가상 二二二五

故鄭景玉教授

현대에는 예수께서 가지셨던 사상이 명료하고 힘있게 인식되어야 할 정세이다. 예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진리가 우주의 품속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인간의 약점과 죄악을 가장 실체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예수보다도 사람을 아끼고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은 사람이 적다. 그는 사랑과 진리를 믿고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자는 장차 잃어버릴것이요 누구든지 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장차 찾을것을 가르치셨다. 얼마나 참되고 아름다운 말씀인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자.

信仰의 빛이 야기

왕자의 기쁨

독일 함부르크방에 가난한 구두 지이가 있었다. 아슬부슬 발까지 뚫려서 구두바닥을 두들겨서 간신이 호수를 해가 노라니 세상의 낙이란 아모것도 없는 불쌍한 정경이었다.

우리는 예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사실상 예수보다도 처자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예수를 사랑하는것 보다는 지위나 명예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여서 향락을 추구할지언정 우리의 향락을 희생하고라도 예수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좀 더 진접한 태도로 우리의것을 삼자. 좀 더 성의와 열을 가지고 예수주의에 굳게 서자. 우리는 예수주의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조금도 부끄러울것이 없다. 주저할것도 없다. 여름여름할것도 없다. 예수주의는 가장 명확하고 단도직입적인 것이다. 거기에는 조금도 예누리가 없다.

물째로 우리는 예수의 사상

대구에서 하는 은종문화협회에서도 여러가지 서적이 나는 데 장차서 사회사업을 대할 모양이다.

생물학과 경제학은 물론 여러종 형편이다. 물가도 오르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니 곧 인류애가 되는것은 걱정이다.

물같이 흐르는 「대우에 大우여」도 시 사람 열혈정이는 살기가 늦었지만 물 속에서 세로 물과 비로와 기다릴수없는 사 고 자네 공부시키는 농민들이 곤난이라 또한 걱정이다.

농민들의 말이 「나오니, 농촌 이야기들 하자면, 일자가 가보지는 못했으나 지방 농촌에 많이 돌아 다닌 이호빈목사의 말을 들으니,

지금 농촌의 가장 큰 문제 는 미량인파 처녀들의 문제다

남자들은 많이 전사하고 일선 에 나가있고 뒤에는 무수한 젊은 과부와 혼기 지난 처녀들이 남아있는데 이 과부들이 살길이 막연하고 처녀들은 시집감매가 없고 그렇다고 과거의 습관으로 집에 틀어 앉아 있는 처녀들이 별안간 밖에 나가니 무슨 장사나 더구나 노동할 수도 없고 야단이다

저들이 갈바를 모르고 희망을 잃어버린 형편이다.

일할줄을 모르고 희망을 잃어버린 농촌 미량인파 처녀들을 어떻게 살길을 내 줌으로 해가고 내 감사를 내 손으로 지키고 꾸미도록 하는 특별한 정신과 희망을 주는것이 오늘 날의 우리 나라 우리 사회에 서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그는 아침 일찍 이러 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였다. 처마끝에서 지저귀는 새들보고

「참새야 너는 참 행복스럽다. 먹을것정 일할것정이 없

이! 노를만 하든다. 도 그렇다. 아모리장이 었다 하!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고맙기 그지 없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싱싱한 웃으면서 농기름마음으로 일을 하였다.

한번 어떤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이사람을 보고

「어보 당신의 언제보다도 싱싱한 웃고있으니 대체 무엇이기에 「그렇소!」 「네! 그렇소!」다 참 생각할수록 기쁘지요!」

「어째서? 실례지만 보매 재산도 없는것 같고 밭이도 번번치 않은모양인데 무엇이 그리기해서 「그리우!」

「그래도 나는 걱정이 없답니다. 내이 여친손으로도 부지러! 이 일을 하면 일급식구가 먹여가기는 걱정이없답니다. 어쨌든 나는 행복자예요!」

「글세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이 어째서 행복자라는 말이이요!」

「날더러 가난하다고요! 나는 저큰은행에 제법거래가 있답니다. 그래보기도 나는 일급의 아들이랍니다!」 왕자랍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연의 사물에 대하여는 정신이 팔리고 정신적실체에 대하여는 회미한 생각을 하는가. 나는 금강산 구경을 갈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난다. 금강산을 과연 기묘하게 생긴 명산이다. 그 기묘한 피봉과 청계심산이 불매다 새로운 감각과 경탄의 느낌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장엄한 산이 내게 주는 감흥이 크면 클수록 나는 왜 산을 보면 이렇게 감탄하면서도 인격이나 인격적실체를 불매에는 그만큼 감격한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때가 많았다. 산은 장엄한 산이다. 산은 아름다운것이다. 산을 불매에 장엄한 미를 감탄한다면 산을 불매에는 더욱 큰 감격이 있어야 할것이다. 선이란 실로 경탄과 감격이 아니고는 불수 없는 인격적

이런 말을 듣고 대학생은 「미
침사람이로군」 하고 웃고 가
버렸다.

그후 한주일만에 그대학생이
그가난한 구두발앞으로 또 지
나가다가 작난삼아서 「안영합쇼
왕자전하」 했더니 주인 늙은이
는 판가운듯이,
「참 잘으셨읍니다. 접대는
감재가 가셔서 이야기가 중
동이 끊어졌더니 잘으셨읍니
다. 당신은 나를 미친사람으로
알으셨는지 모르거니와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자연 아실겁니다. 자우선 우
리나라의 국가나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고 늙은이는 찬
송가를 한절 기운껏 불렀다

스렛츠牧師

韓國 開拓 傳道

작년十一月에 미국 앳셀블리
옴 파드(하나님의 교회)선
교부의 파송을 받아 한국 선
교를 목척하고 부인과 어린
파남 둘을 동반하고 온 스렛
츠 목사는 지금 가족은 일본
동경 다마가와에 두고 방금
본국 서울 한강로에 주재하면
서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고

실재인 까닭이다.
이렇듯 속화한 내가 예수의
인격을 얼마나 흠모하는가에 예
수의 인격이 발로하는 선에
대하여 내 경탄하는 느낌이
얼마나 컸는가. 이렇게 자문하
여 볼때에 천박한 감각에는
빨리 움직이고 깊은 인격의
세계에 있어서는 둔각이 된
나를 스스로 부끄러워 한다.
여기서 다시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예수의 인격으
로 채워보자.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주어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인격으로
우리의 사표가 될만한 분이
적은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
다. 어떤 시골 영감이 서울서
공부하는 딸을 찾아와서 처음
으로 서울구경을 하였다. 보는
것 들는것이 모두 이상하고
신경하였을 것이다.

「자! 그만하면 아시겠소 천
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왕
이 되여 장차세계를 다스리실
텐데 우리신자는 그왕으로터
부터 천지만물을 은혜로 받
아가질테이니 나는 천국 은
혜에 돈줄때겨두었으니 아모
걱정 없읍니다. 공중에는 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당신의아들을 안먹이고 안입
히시겠읍니까」
「그럼말이 어디있읍니까」
「성경말씀 가운데 있지요」
그후에 이대학생도 성경을
상고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었
다.



(사진은 스렛츠목사와 그 가족)

香氣

最後의 一刻까지

六二五 사범이 터지자 서울
시민은 말할것도 없고 고관들
과 군인까지 정신없이 피난하
고 후퇴할 때에 아현 마루태
기 로타리에서 교통정리를 하
고있는 현병이 있었다.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오고
서대문밖으로 해서 아현쪽으로
들어올 때 후퇴하는 자동차들
은 사방에서 이 로타리로 전
속력을 내서 통과하는데 현병
은 파나없이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산군이
아현고개를 넘어오는것을 본
현병은, 일이다 끝난줄을 알고
하면 빈집으로 자취를 감추었
다. 그리자 그방에서 「망」소
리가 울려왔다. 이때 공산군이
와서 「금방 교통정리를 하고있
던 현병이 어디 있어...」
하고 야단하면서 어디 숨
었기나 했는가 하고 찾아본
결과 빈집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현병을 발견하였다. 적
군이 나마 최후의 일과까지 자
기의 직분을 다하고 자기 권
총으로 자살한것을 보고 감탄
하기를 마지않았다고 한다.

한국 요리법

밀 국수 (여름철)

재 료 (네그릇)			
밀가루	오홑	오이	두개
콩가루	반홑	소금	조금
간장	한종지	우육	반의반근
파	세뿌리	기름	한차사시
마늘	두쪽	계란	한개
호추가루	조금	즙	오홑
깨소금	한큰사시		

1. 밀가루와 생콩가루를 함께 섞어서 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가지고 한번 끓여서 끓는물로 반죽을 해서 오래 처가지고
2. 얇게 밀어 가늘게 쳐쳐가지고 찢찢끓는 물에 넣어삶는

- 데 국수를 넣어서 부터 칠분동안만 끓이면 꼭 알맞게 익나니
 3. 즉시 건져서 냉수에 잠깐만 잠갔다가 빨리 솥반에 놓아 물을 빼고
 4. 맑은장국을 끓이고
 5. 오이를 체쳐서 소금에 약간 절여가지고 물을 꼭짜서 번철에기름을 두르고 살짝 볶아놓고
 6. 계란을 황백미 각각 부쳐서 체쳐놓고
 7. 설산적을 한조각 만들어서 구어가지고 대강만 이겨놓고
 8. 국수를 대접에 담고 산척고기 이긴것을 얹고 또 오이 볶은것을 그위에 얹고 계란채를 뿌리고 장국을 뿔뿔끓여서 부어 놓느니라
- (비 고)
1. 끓는 장국에 계란을 푼어서 넣어가지고 국수에 붓기도하고
 2. 오이대신 미나리를 볶아서 얹어도 좋으니라



광명의 새세계 (6)

「한목사님 덕에 안 가실려우 아무래도 위중하신 모양인데」
「참 오늘은 만사를 전파하고 목사님 가 봐야겠어 잠깐만 기다리시오」

태호가 만 오개월만에 영향에서 나온지도 벌써 보름이 지난 어느날 태호와 명애 두 사람은 오라간만에 한목사의 위문을 가려 떠났다.

두사람은 그동안 몸으로 떠났다가 만났다기보다도 마음으론 거리가 멀든 것이 다시 가까워지고, 한 식구가 되고 새부부가 된것이다. 그래서 두사람이 같이가는 거를거리는 딱 자연스럽고 행복스러워 보였다.

지난 주일은 전날 저녁에 명애의 친정에서 온식구가 같이 기쁨으로 식사를하고 밤을 지낸 뒤에 아침에 여러식구가 같이 예배당으로 가는데 태호와 명애가 몇발거름 앞서서 갈때에 정장로 내외도 써기 뻗치마는 명애 자신은 말할수 없이 기쁘다 그렇게 기쁜 일은 평생에 처음 당했다고 그날 밤에 명애는 어머니에게 속사졌다.

한목사의 병은 약간 차도가 있는듯 하였다. 그래서 두사람이 찾아온것을 펴 반겼다.
「목사님 오셨다 축하드립니다. 윤선생 내 이야기들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찾아가신다고 그러셨다오」

정자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한 목사를 바라본다.
「목사님 편치못하신 말씀을 들구요 진작 와보지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나았 두사람의 인사에 한목사는 뼈만 남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한다. 태호의 손을 한참이나 붙잡고 놓지않고 귀여운듯이 얼굴을 들여다본다.
「예배당에 같이 갔었다구」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신덕에

저는 그동안 그런데 들어간 것이 도리어 복이 되어서 새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제가 성경을 처음 읽고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세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하이고마워 하누님의 은혜여 하누님의 권능이 커서」
태호의 말을 듣고 한목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다.

「크리스마스 새벽 종소리에 저는 하늘이 열리고 빛이 비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울기두 많이 울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날부터 가슴이 시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그날부터 치운 영감이 천당처럼 편안해요」

「됐어 됐어 이제 됐어 명애가 얼마나 기쁠까!」
한목사는 명애를 바라본다.
「목사님 저는 이제 죽어두 한이 없어요」

명애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다.
「명애가 그새 얼마나 애를 태우고 기도를 했기에 새벽마다 하루두 빠지지않구 나와서 : : :」

정자부인이 이렇게 명애의 정성과 신앙을 칭찬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애의 착한 심성을 보시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지」

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여 나라의 장래와 태호 내외의 사명과 책임이 큰것을 말하고 자신은 죽어서 없어진 뒤에라도 나라를 위해서 복을 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일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태호를 위해서 감격스러운 기도를 한참이나 하였다.
「목사님 염려마세요 제 힘껏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래 앉아 계시서 저이들을 지도해주셔요」 하고 태호의 부부는 곧 물러나왔다. 한목사가 너무 흥분해서 병에 해로울까 염려가 된것이였다. (끝)



洋服地・人絹織物・ビニール製品
雨具類・カバン・袋物・各種商品 卸
輸出商

金澤商店

店主 金 沢 満
住所 下關市伊崎町五三ノ八番地
電話 (2) 三七〇四番
取引銀行 帝國銀行下關支店

學生募集 (男女共學)

- 一 定員、一〇〇名
 - 一 資格、不問 (男女小中高學生勤勞男女青年生皆歡迎)
 - 一 年令、十歳以上
 - 一 授業日時、毎週月火木金土 毎夜六時半 : 八時半
 - 一 課目、國語 國史 音樂
 - 一 期間、普通科 一年間 速成科 六個月間
 - 一 入學金、貳百圓也
 - 一 授業料、月壹百圓也
 - 一 願書接受、四月五日卅止
 - 一 其他 자세한 것은 本校로 問議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 京都市右京區西院矢掛町二〇
- ## 京都教會夜間學校
- 電話 壬生五〇五一番